



25일 오후(한국시간) 카타르 도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4강전 한국 대 일본 경기에서 승부차기 끝에 패배한 박지성(맨 왼쪽) 등 한국선수들이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왕의 귀환’ 실패했지만 희망을 봤다

승부차기 3연속 실축, 숙적 日에 0대3 패…亞컵 결승행 좌절

28일 자정 우즈벡과 3·4위전

한국 축구가 숙적 일본과 아시안컵 준결승에서 결정적인 순간 내준 폐널티킥 기회와 승부차기 실축으로 51년 만의 우승을 향한 꿈을 접었다.

한국은 26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펼쳐진 2011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에서 120분 연장 끝에 2-2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0-3으로 패했다. 폐널티킥 때문에 놓고 올라 마지막 승부차기에서 분루를 삼킨 아쉬운 한판이었다.

전반 23분 박지성이 상대 반칙으로 얻어낸 폐널티킥 기회를 기성용이 침착하게 살려 선제골에 성공할 때까지만 해도 승리는 한국 편에서 미소 짓는 듯했다. 하지만 전반 36분 마에다에 동점골을 허용해 연장에 들어간 한국은 연장 전반 7분 황재원의 파울로 폐널티킥을 내주고 말았다.

다시보기 화면상으로는 폐널티 지역 외곽 정면에서 상대 공격을 끊어낸 것으로 보였지만 알 감디 주심은 선수들의 항의에도 아랑곳 않고 폐널티킥을 선언했다. 훈다가 맡은 슈팅을 골키퍼 정성룡이 몸을 날려서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에 달려들은 호소가이가 재자 슈팅을 날려 리드골을 성공시키는 바람에 한국은 1-2로 끌려가는 신세가 됐다.

‘11m 룰렛’ 1번째 키커 기성용이었다면?

신예들 실축 ‘조감독 선택’ 논란

한국이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 승부차기에서 한 골도 못 넣고 완패하며 51년 만의 정상 탈환 꿈을 접자 축구팬 사이에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은 ‘11m 룰렛’으로도 불리는 승부차기에서 경험에 적은 젊은 선수들만 키커로 내보낸 조광래 감독의 선택이 과연 ‘최선이었느냐’는 것이다.

키커 모두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들이고, 특히 이용래와 홍정호, 손흥민은 A매치 출전 경험이 4~6경기에 불과한 신예들이라 중압감이 심한 승부차기의 키커로 이들을 낙점한 것은 조 감독의 과신이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을 감안하더라도 불필요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장면이었다. 더구나 한국은 앞서 조별리그에서도 비슷한 실수를 여러 차례 저지른 뒤였다.

조별리그 바레인과 1차전에서는 과태휘가 폐널티킥을 내주며 뇌상을 당하는 바람에 수비진 구성을 애를 먹었고 인도와 3차전에서도 재차 폐널티킥을 내주고 4-1로 승리해 골득실로 조 1위가 될 기회를 놓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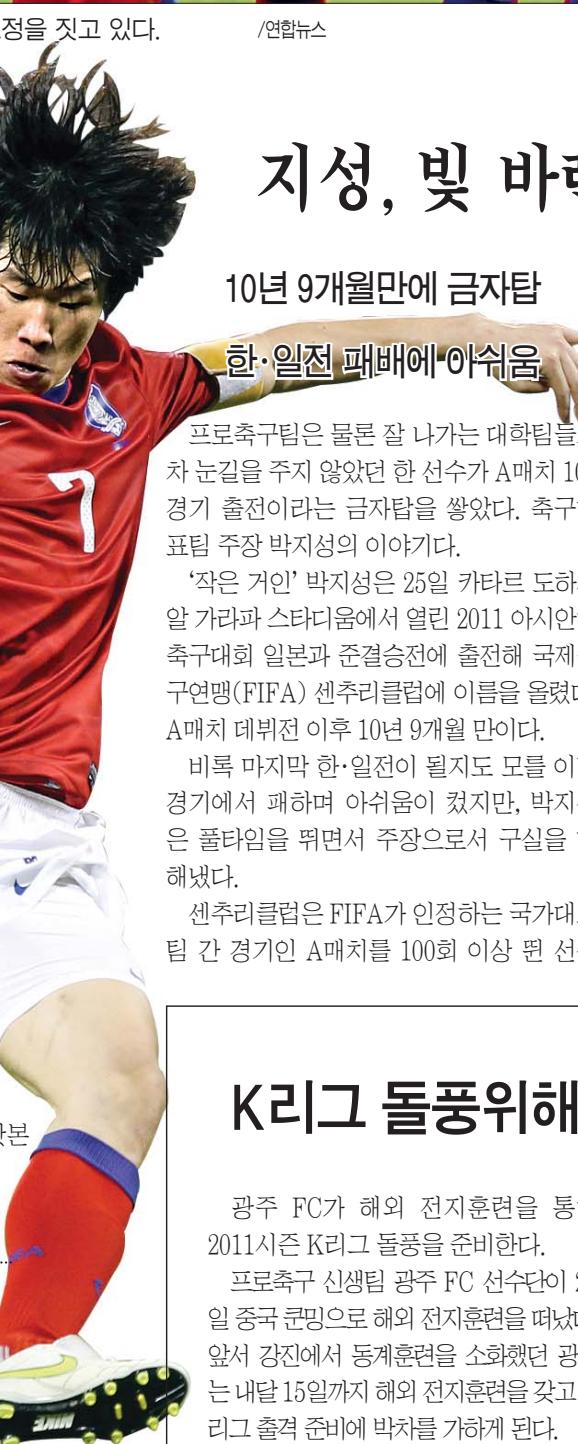
다행히 연장 후반 막판 황재원이 회심의 원발슛으로 ‘속죄 동점골’을 날려 승부를 2-2 원점으로 되돌렸지만 이번에는 승부차기가 밭복을 잡았다.

구자철이 1번 키커로 나섰지만 중압감을 이기지 못한 탓인지 실축하고 말았고 뒤이은 이용래도 성공시키지 못했다. 일본의 세번째 키커 나가토모의 슈팅이 크로스 바를 넘어가 불씨를 살렸지만 세번째로 나선 홍정호 역시 상대 골키퍼에 막혔고, 뒤이은 일본의 네번째 키커 곤노가 침착하게 골망을 가르면서 결국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다.

‘젊은 괴’를 내세워 한층 성장한 경기력으로 우승의 꿈을 키웠던 한국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는 바람

에 밟길을 돌리게 된 것이다. 이날 폐대로 한국은 1960년 2회 대회 우승 이후 51년 만에 돌아온 아시안컵 정상 탈환의 기회를 놓쳤고, 1988년 카타르 대회(준우승) 이후 무려 23년 동안 아시안컵 결승 진출

에 실패하고 말았다. ‘도하의 좌절’을 맛본 한국은 오는 28일 자정 우즈베키스탄-호주의 4강전에 3-4위전을 치른다.



10년 9개월만에 금자탑

한·일전 패배에 아쉬움

프로축구팀은 물론 잘 나가는 대학팀들조차 눈길을 주지 않았던 한 선수가 A매치 1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축구대표팀 주장 박지성의 이야기다.

‘작은 거인’ 박지성은 25일 카타르 도하의 알 가라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일본과 준결승전에 출전해 국제축구연맹(FIFA) 센추리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비록 마지막 한·일전이 될지도 모를 이날 경기에서 패하며 아쉬움이 커지만, 박지성은 풀타임을 뛰면서 주장으로서 구실을 다해냈다.

센추리클럽은 FIFA가 인정하는 국가대표팀 간 경기인 A매치를 100회 이상 뛴 선수수

그룹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 센추리클럽에 가입한 선수는 흥명보(135경기), 이운재(132경기), 이영표(126경기), 유상철(122경기), 차범근(121경기), 김태영(105경기), 황선호(103경기)에 이어 박지성이 8번째다.

박지성은 100경기 중 축구 선수들에게는 꿈의 무대인 월드컵 본선에서만 14경기를 뛰었다.

한국축구의 아이콘이 뛰어넘어 아시아축구의 자랑으로 급성장한 박지성은 2006년 독일 대회, 주장 완장을 차고 뛴 2010년 남아공 대회까지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으면서 사상 첫 월드컵 16강 진출의 큰 힘이 됐다. 미드필더인 박지성은 A매치에서 13골을 넣었다. 아시아 선수로는 처음으로 3회 연속 월드컵 본선 득점 기록도 세웠고, 월드컵 본선 최다 득점(3골) 타이기록까지 갖고 있다.

연합뉴스

K리그 돌풍위해…광주FC 해외 전훈

광주 FC가 해외 전지훈련을 통해 2011시즌 K리그 돌풍을 준비한다.

프로축구 신생팀 광주 FC 선수단이 26일 중국 Kunming으로 해외 전지훈련을 떠났다. 앞서 강진에서 톳계훈련을 소화했던 광주는 내달 15일까지 해외 전지훈련을 갖고 K리그 출격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번 훈련에는 최민희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33명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한다. 내달 4일까지 Kunming에서 훈련을 갖는 광주는 이후 상하이로 건너가 조직력 강화에 나선다.

Kunming 1차 캠프에서는 항주 녹성, 성도, 순천, 국안, 충진 등 프로팀과의 대결을 통해 팀 전술과 체력 훈련을 실시한 뒤 상하이에서 연습경기를 통해 베스트 11을 완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최민희 감독은 “중국 전지훈련이 올

층 더 커진 부담이 다음 키커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다. 키 능력이 가장 좋고 이날 폐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넣는 등 컨디션이 좋았던 기성용을 먼저 차게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가질 만한 대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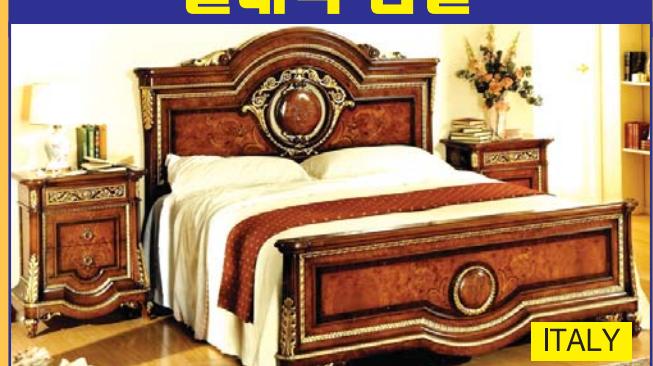
조 감독 역시 경기 후 “순번은 사전에 연습을 좀 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너무 지쳐서 그런지 연습 때 했던 능력이 나오지 않았던 것 같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털어놓았다.

그렇다면 주장인 박지성은 왜 승부차기 명단에 없었을까? 박지성은 수원공고 3학년 재학 시절 금강대 8강전에서 승부차기 실축으로 대학 진학의 조건인 전국대회 4강 진출을 이루지 못하는 등 승부차기와 악연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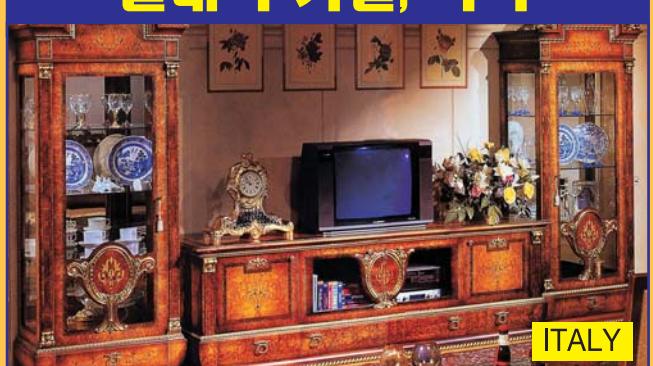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는 키커로 나서지 않으려 한다. 박지성은 경기 후에도 “연장전이 끝나고 감독님이 결정하신 순서”라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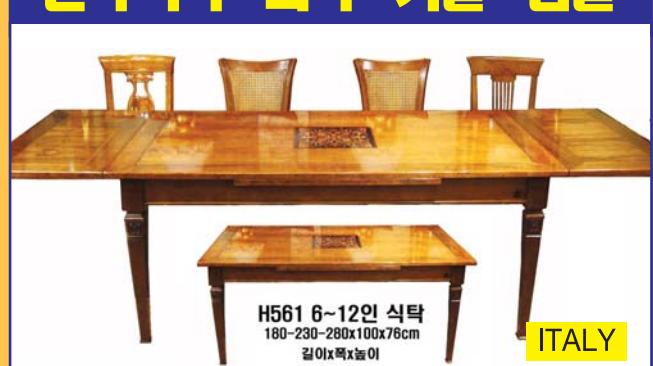
클래식 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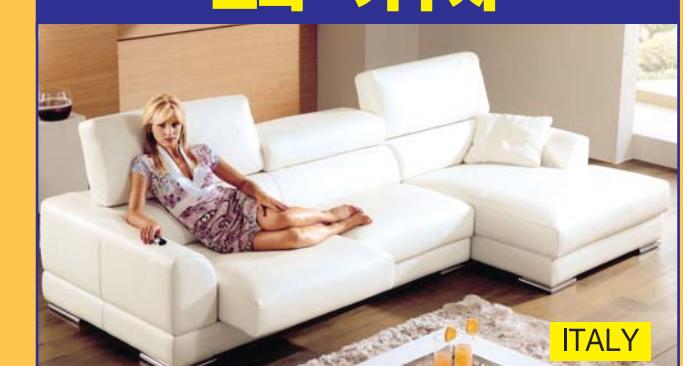
클래식 거실, 식탁



앤틱식탁·좌탁·거실·침실



소파·카우지



SPACE
스페이스
이태리가구 직수입 도소매 SINCE 1990

상무점 오픈

모든식탁과 좌탁은 상판밑 좌우에 있는 50cm 보조날개 2개로 8인용 10인용으로 쉽게 사용 가능 합니다. (한국독점수입)

상무점 | 서구 화정동 307-1 화정동사거리 (구, 안기부 공항간 대로변 400평) ☎ 062-382-0022
문화전당점 | 동구 장동 58-15 문화전당 장동로타리 (홍스페이스 가구빌딩) ☎ 062-226-7567

(주) 흥스페이스는 1990년부터 인체에 무해한 100% 이태리 친환경 앤틱, 클래식 가구를 직수입 도, 소매하고 있으며 국산 가구가격으로 공급하고자 백화점 중심 영업에서 직수입→직영점판매를 하고 있습니다.